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

'신대철' 기타 리스트가 최근에 '밴드 top 3' 프로그램에서 심사 코치를 하고있다. 신대철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타리스트며 작곡가였던 신중현씨의 아들이다.

'밴드 top 3' 라는 음악 프로그램은 특별히 밴드 중심의 음악을 추구하는 젊은 차세대 음악인들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그룹자들이 신대철씨에게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가 란 질문에대해서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음악에는 '대중이 듣기 원하는 음악'이 있고, '대중이 들어야하는 음악이 있다' 라고했다. 오랜동안 대중을 상대로 음악을 하면서 경험한 의미 깊은 견해라고 본다.

신앙인에게도 음악인처럼 크게보면 두 종류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

둘의 차이는 별 것 아닌 것같지만 대중음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 대중이 듣기 원하는 음악을 하면 '돈' 을 좀더 벌 수는 있을것이다. 그리고 이름도 좀 알려 질수 있을것이다. 때로는 '스타' 라는 명칭도 따라 붙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이런 '듣기 원하는 설교' 에 빠져든다. 그리고 매혹을 느낀다. 마치 설교를 통해서 심리적 보상을 받는 느낌이 든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들어야 할 설교' 를 외면한다. 왜 그럴까?

마가복음 8:38 절 말씀에 그 이유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는 들어야 할 말씀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자신이 부여 받은 음악적 자질로 '대중이 들어야 할 음악' 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끝내는 음악세계에서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자들 보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대중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하는 설교' 를 하는 자들이 끝내는 '영광의 면류관' 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은자들이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위에 지대한 영향을 나타낸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룩한 언어적 수단이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할수 있으랴...

설교가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면 대중이 듣기 원하는 설교보다 대중이 들어야 할 설교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필요하다.

오늘날 강단에 선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재미 있고 웃을 수 있고 부담 없이 가볍게 듣기 원하는 설교보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을 바로 보게 할수 있는 진지하고 성경에 충실한 '들어야 할 설교'를 담대히 대언하기를 바란다.

2015 년을 뒤돌아 보며 설교자로서 나 자신을 반성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진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중이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는자가 되기를 또 다짐해 본다.

벨리 코리안 뉴스 독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메리 크리스마스 & 해피 뉴 이어"

[최사무엘목사 칼럼 11-18-2015]